

21 기쁘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에스라 1~2장

그들은 집과 땅들을 팔고 재물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온 땅에 ¹⁾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¹⁾조서: 왕의 명령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성경 암송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3)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에게 은과 금 그리고 필요한 물건과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귀한 그릇과 기구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의 말을 듣고 꿈꾸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일을 생각하며
그를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은 집과 땅들을 팔고 재물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쁘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이 찔렸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1~3)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

① 하나님

② 바사 왕 고레스

③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쁘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자신이 살 집을 지었다.

②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다.

③ 농사를 지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
 하기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죄로 인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다음 예화를 읽고 종일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종일이는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고 머릿통도 암송도 하기 싫다고 3주째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늦잠 자고 친구들과 놀이 공원도 갔으며 컴퓨터 게임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일이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발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종일이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교회 가서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사람을 징계하시지만 죄에서
돌아키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단다.

내가 해 주고 싶은 말:



종일이가 다시 교회에 나갔을 때, 종일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25:16)



여러분도 종일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면 쓰고 선생님과 이야기 해 보세요.



알아볼까요



내가 보는 첫 얼굴



크로스비는 어려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를 8,000곡 이상을 썼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14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20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434장) 등 많은 은혜로운 찬송가사들이 다 크로스비가 쓴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크로스비가 앞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자 크로스비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처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 달라는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천국에서 뵈올 우리 주님의 얼굴이 내가 보는 첫 얼굴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8세 때,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지금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난

선생님난